

남북협상과 건국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초록

남북협상은 194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미국과 유엔의 주도에 의한 ‘가능지역 총선거’(이른바 5-10단독선거)가 현실화되었던 시점에 남북 지도자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통일운동을 지칭한다. 정파에 따라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5-10선거에 참여해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한민당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남북협상이 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해 들러리만 쓴 것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소련에게 놀아난 것으로 평가 절하시켰다. 반면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비록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후 통일운동의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국민의 통일의지를 발산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건국론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남북협상론과 통일지상주의는 심금을 울리는 고귀한 감정 표현이며 최선의 방책이기는 했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일뿐이었다. 이에 비해 이승만-한민당의 선정부 수립-후통일론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택이었다. 만약 이승만이 단독정부라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미 수립되었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남쪽을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단정 반대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평가도 있다. 북은 이미 인민군을 창설했으며(1948년 2월 8일) 헌법 초안까지 발표(1948년 2월 10일)했으며 남북협상 남측 대표단이 아직 평양에 있었던 1948년 4월 28일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9일 헌법 초안을 통과하는 등 단독정부를 계속 추진하던 상황도 남의 단독정부 추진세력들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Kim Koo and Kim Kyu-shik's Unification Talks with Kim Il-sung, 1948

Abstract

With the liberation of Korea, Kim Koo and Kim Kyu-shik returned to Seoul with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s leading officials in Chungking, China on November 23, 1945. As the division of the newly-independent country became obvious on April 1948, Kim Koo and Kim Kyu-shik led a team of former independence activists to Pyongyang to hold unification talks with Kim Il-sung (who later became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but failed drastically after being humiliated by Kim Il-Sung. After their failed efforts to broker reunification in that year, they rejected to participate the first general election dated May 10, 1948. Kim Kyu-shik retired from politics, whereas Kim Koo continued unification movement.

Progressive scholars regarded two Kims' participation of South-North talks and boycott of UN decision as the ideal thought to prevent the division of Korea. But the New Right scholars criticized their behavior as factionalism which broke a solidarity among a Nationalistic political group. From the standpoint of realistic school, Kim Koo was a politician who had a political desire to candidate the 1st presidency. But under UN formula, Kim might estimate that he would be defeated by Syngman Rhee. Eventually, Kim Koo crossed the border to disguise himself as a activist with a noble unification thought.

남북협상은 194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미국과 유엔의 주도에 의한 ‘가능지역 총선거’(이른바 5-10 단독 선거)가 현실화되었던 시점에 남북 지도자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인사들의 통일운동을 지칭한다. 정파에 따라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5-10선거에 참여해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한민당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남북협상이 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해 들러리만 쓴 것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소련에게 놀아난 것으로 평가 절하시켰다. 이미 분단의 기본 구조가 확정된 상태에서 두 영수가 헛수고를 했다는 것이다.¹⁾ 반면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비록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후 통일운동의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민족의 통일의를 발현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 남북협상인가 연석회의인가?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했던 이 정치적 사건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도 이견이 있다.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김구-김규식의 주도를 인정해 남북협상이라고 부르지만 북한과 남한내 진보적 연구자들은 김일성 주도를 인정해 ‘전조선계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약칭 연석회의, 혹은 전정)라고 부른다.²⁾

즉 남한에서는 김구-김규식이 주도하여 김일성-김두봉을 만나 담판했던 요인회담과 四金會談에 그 중심으로 두는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개최한 정당-사회단체 회의에 남의 일부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에 비중을 둔다. 남의 시각은 지도자-개인 중심임에 비해 북은 단체 중심이며 이러한 시각차가 지금까지의 남북의 통일논의에서도 각각 연결된다. 현재 남한은 정상회담-고위급회담에 비중을 두는데 비해 북한은 여러 단체의 회합에 의한 밑으로부터 통일전선구축을 우선시하여 지도자배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자신의 단독정부를 남북을 통한 전국정부라고 합리화하기 위해 연석회의라는 틀을 강조해온 북한은 이후 대남 평화통일 공세에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2. 남북협상 주도 세력

이 운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도 역시 대비된 시각이 존재한다. 초기(1948년 1월 26일-3월 24일) 협상체제는 김규식(최초에 김구는 수동적이었으나 월경할 때는 김구가 주도적이었다)이 주도했다. 당초 김구는 분단정부 참가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1948년 1월 單選-單政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자 김규식과 동일한 노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규식의 이론에다가 김구의 민족주의적 추진력이 결합된 것이었다(한편 민주독립당수 홍명희의 측근이었던 유석현 민주독립당 총무부장 겸 정치부장의 회고에 의하면 이미 월북해 있던 백남운이 1948년 2월 비밀리에 월남하여 홍명희를 만나 남북협상을 제의했고 홍명희는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홍명희는 김규식에게 연락을 취했고 김규식은 김구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³⁾).

김구-김규식은 각각 장덕수 암살 배후설(1947년 12월 2일 암살건에 대해 1948년에 공판정에 섬)과 700만원 사건(1948년 2월) 등의 모략 사건으로 인해 그 대중적 인기가 이승만에 비해 하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2월 16일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들의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한참 동안 답신이 없었다. 유엔의 결의를 지켜보면서 회담을 늦춰온 김일성은 1948년 3월 25일 북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일방적 결정을 담은 방송 연설을 했다. ‘전조선계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것은 남북요인회담을 내용으로 하는 김구와 김규식 연서에 대한 답신은 아니었다. 대신 남북회담 규모를 확대하여 지도자 회담의 차원을 넘어선 단체 회합으로 만들어서 역제외했던 것이며 양김의 제안은 무시당한 측면이 있었다.⁴⁾ 이 회의의 목적은 남조선단독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⁵⁾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이 이후에는 북의 김일성이 남북간의 협상을 주도했다.

1) 양동안, “1948년 남북협상의 허와 실,” 『한국사 시민강좌 38: 대한민국 건국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일조각, 2006년 2월).

2) 정창현, “김구-김규식과 남북연석회의,” 『사상문예운동』 (1990년 겨울호).

3)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신동아』 (1980년 3월), p. 175.

4) 송남헌, 『해방30년사』, I (서울: 성문각, 1975), pp. 453-454.

5) 박광 (편), 『진통의 기록: 전조선계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문헌집』 (서울: 평화도서주식회사, 1948), p. 1;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일.

한편 김구-김규식의 연서에 대한 답신의 형태를 갖춘 3월 25일자 김일성-김두봉의 서한이 3월 27일에 전달되면서 김구-김규식은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했다. 25일의 방송은 다소 과격했던데 비해 27일 전달된 서한은 다소 온건했으며 김구와 김규식의 2월 16일자 서한을 받았음을 명기했다.

또한 3월 25일부의 “남조선단독정부를 반대하는 남조선정당단체에게 고함”이라는 서한이 북조선노동당 등 9개 정당-단체(민주당, 청우당,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여성동맹, 민청, 민주기독교연맹, 불교연맹)의 명의로 남한의 단정반대 정당-단체들(남조선노동당, 한국독립당, 민주독립당, 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신진당, 민주한독당, 전국노조평의회, 전국농민연맹, 민주여성동맹, 청우당, 기독교민주동맹, 유교총연맹, 문학예술단체총연맹)에 3월 27일 전달되었다.⁶⁾

북한의 제의에 대해 양김씨는 3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1차 회합을 평양에서 하자는 것이나 라디오 방송시에 남한에서 여하한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제1차회담도 미리 다 준비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기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남북회담 요구를 한 이상 좌우간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⁷⁾

그러나 양김씨는 특사를 파견하여 김일성의 의사를 타진하는 신중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4월 13일 밀사가 돌아오자 김구는 북행의사를 명백히 했지만 김규식은 북행을 보류했다.⁸⁾ 또한 김규식은 4월 14일 안경근을 파견하는 등 김일성의 의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했다. 이 와중에 우익청년단체와 기독교단체, 월남동포 등은 이 협상을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문화인 108인은 4월 14일 성명을 통해 협상을 지지해 당시 통일열망을 증폭시켜 대변했으며⁹⁾ 대중들은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한다’는 노지도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편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¹⁰⁾ 김규식은 4월 19일 김일성에게 특사를 보내 다음과 같은 5개항의 조건을 김일성이 수락하면 북행하겠다고 전했다.

1. 여하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이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를 건립할 것.
2. 독점자본주의경제제도를 배격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건립할 것.
3. 전국적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4. 여하한 외국에도 군사기지를 제공치 말 것.
5. 미소양군 조기철퇴에 관하여서는 선이 양군당국이 철퇴조건 급 기일 등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을 주장할 것.¹¹⁾

김규식은 원래 평양회담을 예비회담으로 하고 본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유엔조위의 북조선입경을 허용하여 남북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 등 4개 조건을 김구에게 제시하여 북의 의사를 타진하자고 협의했다. 그러나 김구는 유엔조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고 맞섰다.¹²⁾ 이에 김규식이 다소 양보하여 5개항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수락의사가 전해지자 김규식도 북행할 것을 결심했다.

결국 김구의 과단성 있는 결단과 김규식의 신중함이 결합되어 양김씨는 4월 19일(김구)과 21일(김규식)에 각각 북쪽으로 출발했으며 20일과 22일에 각각 평양에 도착했다.¹³⁾ 김규식은 무조건 북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김구는 여하간 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대의견에 직면했던 김구는 4월 19일 출발을 만류하는 군중들에게 “나는 독립운동으로 내 나이 70이 되었다.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여러분은 나에게 마지막 독립운동을 허락해 달라. 이 대로 가면 한국은 분단될 것이고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열변을 토로했다. 전쟁이 올 것을 김구는 예언했던 것이다. 김구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추구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8선을 넘었으니 분명 당시 한국민족주의의 대변자였다고 할 수 있다. 김구는 북한에 이용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

6) 박광 (편), 『진통의 기록: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문헌집』 (서울: 평화도서주식회사, 1948), p. 3;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일.

7) 『조선일보』, 1948년 4월 1일.

8) 『민중일보』, 1948년 4월 15일.

9) 박광 (편), 『진통의 기록: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문헌집』 (서울: 평화도서주식회사, 1948), pp. 3-7.

10) 송남헌, 『해방30년사』, I (서울: 성문각, 1975), p. 460.

11) 송남헌, 『해방30년사』, I (서울: 성문각, 1975), p. 460; 『동아일보』, 1948년 4월 22일.

12) 『동아일보』, 1948년 4월 16일.

13)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신동아』 (1980년 3월), p. 178.

을 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남한의 정국은 또 다시 격동 속에 들어갔으며 정계는 선거참여파와 남북협상파로 양분되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미리 준비된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김구는 소극적이거나 참여했지만 이를 늦게 출발했던 김규식은 건강을 핑계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의 연합체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남북회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3월 29일 일찍이 발표했으며¹⁴⁾ 그 구성원들은 4월 9일까지 이미 평양에 도착했던 상황이었다.¹⁵⁾ 김구-조소앙-조완구-홍명희 4인은 회의 3일째인 4월 22일 12시 45분경에 회의장소에 입장하여 이미 28명으로 구성된 주석단에 보선되어 축사를 했을 뿐 홍명희를 제외한 3인은 회의에 다시 참석하지는 않았다.¹⁶⁾ 연석회의는 김일성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비방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⁷⁾ 김규식은 연석회의를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을 위한 공식회의로 간주하면서 이를 묵인했으며 요인협상회의를 공산측 수뇌부에게 급하게 요구하여 성사시켰다.¹⁸⁾ 즉 4월 27일과 30일 두 차례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즉 남북 요인회담이 열렸다. 남북 지도자 15인(남측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김봉준, 이극로, 엄항섭[이상 우익], 허헌, 박헌영, 백남운[이상 좌익],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영하[북은 모두 좌익]) 이 회담하여 양군 즉시 철퇴 요구, 철퇴 후 내란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인, 전조선정치회의의 소집후 선거를 통해 정부 수립, 단독선거 반대 등 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서를 4월 30일 발표했다.¹⁹⁾ 이정식 교수는 위 4개항이 양김씨가 북행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므로 그들은 이 결정에 대해 만족하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²⁰⁾

또한 요인회담이 열리던 사이에 두 차례 4김(四金)회담이 있었으나 별다른 정치적 결정은 못 내렸다. 단지 4월 30일 김구-김규식은 1)남한에 대한 송전계속, 2)연백수리조합 개방, 3)조만식 월남허용 등을 김일성에게 피력했으며 김일성은 1), 2)항을 수락했으나 3)항은 서로 간에 합의를 못 얻었다. 그러나 북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김씨가 남한으로 귀환하자마자 전기도 농업용수도 모조리 끊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남북협상은 단선을 반대하는 회합으로 귀착되었다.

3. 남북협상 이후 정국 동향

북한은 남북협상 2개월 후에 김구-김규식에게 제2차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2차남북협상; 6월 29일-7월 5일) 개최를 제의했다. 이것은 북한 정권 수립(단선실시)을 위한 술수였다. 따라서 '통일없이 독립없다'던 두 지도자는 북한정권 수립을 위해 '차려진 잔치상'에 다시 한번 들러리 서기를 거부했다. 남북한 어느 한 쪽도 분단된 정부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결의는 확고했다. 남한에서는 좌익과 일부 중간파만이 협상에 참여했다.²¹⁾

그러나 1차연석회의에 남한의 우익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원죄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정부가 남쪽 우익인사까지 참가한 남북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다. 결국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꿈은 현실정치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김구-김규식 양거두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이용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때의 연석회의 개최 주장을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한정권이 출범할 때 그들은 남북간 합작 연장선에서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협상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해 주는 등 북의 공작에 이용당했던 운동이었다. 그러나 당시 외세에 의해 남북간의 분단구조가 구축되려고 했을 때 우리 지도자들은 이에 저항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주기는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협상은 남북간 공식적 통일논의를 둘러싼 대립의 원형이 보여 지는 역사적 회합이었다고 할

14)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일.

15) 『조선중앙일보』, 1948년 4월 14일.

16)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신동아』 (1980년 3월), pp. 180-182.

17)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문헌집』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선전국, 1948), pp. 109-113.

18)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신동아』 (1980년 3월), p. 182.

19) 『조선일보』, 1948년 5월 3일;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4일.

20)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서울: 신구문화사, 1974), p. 197.

21) 송남헌, 『해방30년사』, 1 (서울: 성문각, 1975), p. 473. 이 회담의 결정서 원문은 많은 부분이 삭제된 채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3일자에 실렸다. 좌익신문 중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이 신문은 다른 좌익신문이 폐간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좌익적 목소리를 대변했다.

수 있으며 이후의 통일논의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단초였다고 할 수 있다. 남북협상은 남북 통일논의 대립의 역사적 기원을 보이는 회합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협상 직후인 5월 4일 평양을 출발하여 5월 5일 서울에 도착한 김구와 김규식은 5월 6일 “금반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동포들에게까지 금반 행동으로 많은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연석회의²²⁾는 우리 민족도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조선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북조선당국자들도 단정은 절대로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斷電불실시와 저수지개방도 약속받았다고 부기했다.²³⁾ 그러나 5-10선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북한도 준비된 단정을 계속 추진하여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5월 11일 송전문제에 대하여 “조선인끼리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인 대표를 5월 14일까지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만일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전력공급을 중단한다고 언명했다.²⁴⁾ 이에 14일 정오를 기해 斷電을 단행했다.²⁵⁾ 또한 남한도 북으로 들어가는 송전을 중단했다.²⁶⁾ 이런 현실적 실패에서 김구-김규식 정치사상의 이상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김구-김규식은 5-10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정치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단정수립의 현실론에 이상적 통일론은 설 땅을 잃게 된 것이었다. 김구는 1949년 6월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해 이상적 민족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고 삶을 마감해야 했다.²⁷⁾

4. 외세에 규정된 통일운동

이 운동에 대한 외세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북행의 결행과정에서 임시위원단의 캐나다호주대표는 양김씨의 회의참석을 권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단독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²⁸⁾ 미국은 협상을 말렸으나 월경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1948년 4월 1일 미군정 장관 딘 소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김구 씨 김규식 씨가 평양행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므로 나는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도록 내 책상에 있는 지도를 제공하려 한다. 이 말이 펍 냉소적인 말인 것은 사실이나 나로서는 남북협상이 5-10선거를 방해하려는 연막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같이 냉소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본관이 언명하는 바와 같이 미군정당국으로서는 장차 개최될 동 회담을 하등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후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⁹⁾ 미국은 남북협상을 공산주의자들의 5-10선거 반대 책동의 일환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또한 하지 중장은 4월 6일 특별성명을 통해 “최근에 와서 조선통일을 하기 위해 소위 남북협상 운운의 말이 많은데, 착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협상이 성공하여 조선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북협상을 보아 흥미 있는 것은 북조선 공산정권 수뇌자가 남조선을 대표할 사람을 지명한 것이다. 잘 알려진 사람도 이 협상에 초청을 받았으나 그 대다수는 공산주의자들의 주구로서 해방 후 남조선에서 반동 행위를 해왔고....”라고 언급하여 남북협상 분위기를 비판했다.³⁰⁾ 하지는 남북협상이 이미 끝난 5월 3일 이에 대해 ‘공산당의 모략에 빠졌다’고 혹평했다.³¹⁾ 그런데 미군정은 1946년 5월 23일 발효시킨 38선 무

22) 김구와 김규식도 연석회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남북협상과 연석회의를 동일시한 측면이 있었다.

23)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7일.

24) 『동아일보』, 1948년 5월 12일.

25) 『조선중앙일보』, 1948년 5월 15일; 『동아일보』, 1948년 5월 16일.

26) 『조선일보』, 1948년 5월 16일.

27)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에 수록된 ‘국민정체성’ 조사 중 “해방정국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 문항 결과 김구(85.0%)가 ‘매우+대체로 긍정 영향’이라고 응답한 비율 면에서 이승만(49.5%), 여운형(29.7%), 김일성(10.0%)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편 미국정부(31.1%)는 소련정부(6.2%)를 앞질렀다.

28) 김구의 경우 이승만에 대항하여 최고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기존의 노선에서 이탈했다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김구의 선택을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적 정치가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9) 『동아일보』, 1948년 4월 2일; *FRUS*, 1948, vol. VI, p. 1170.

30) 조규하-이경문-강성재, 『남북의 대화』, 수정증보판(서울: 고려원, 1987), pp. 361-362; 송남현, 『해방3년사』, 2(서울: 까치, 1985), p. 548.

허가월경금지령에 의거 북행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남북협상을 막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³²⁾

미군정은 백범은 몰라도 김규식의 방북은 막아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송남헌에 따르면 미군정은 남한에 정부가 서는 경우 김규식을 초대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미군정 고문들인 버취 중위와 노블(Harold Joyce Noble) 박사도 하여금 하루에도 한두 번씩 김규식을 방문해 북행을 만류하게 했다.³³⁾ 육군차관 트레이퍼, 하지 중장, 미군정정 정치고문 제이콥스와 랭던 등도 우사를 방문해 북행을 만류했다.³⁴⁾

한편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김규식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미군정은 김규식의 요청으로 서재필을 1947년 7월 1일 귀국시켜 하지의 미군정청 최고고문과 남조선과도정부 특별의정관을 맡겼다. 미군정은 서재필이 김규식을 도와 이승만을 견제하면서 모스크바결정을 실현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도 미군정은 모스크바도식을 버리지 못했다. 당시 이승만측이 김규식 대통령설과 아울러 서재필 대통령설을 유포시켰다. 서재필 박사는 4월 9일 조선호텔에서 남북협상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그 통일의 정신은 지극히 지지한다”라면서 “현정세 하에서 남북쌍방이 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니 걱정이다”하고 말함으로써 남북회담의 장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³⁵⁾

이렇게 김구-김규식이 5-10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되어 이승만 천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48년 6월 서재필대통령 추대운동이 벌어졌으나 84세의 노쇠한 미국시민이라는 점과 파쟁에 대한 회의 등이 그를 미국으로 떠나게 했다. 또한 하지도 서재필의 출마를 강권하지는 않았다.³⁶⁾

한편 소련은 연석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당시 전해졌다.³⁷⁾ 1948년 4월 12일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문(63/63)에 의하면 소련은 이 회의를 주관하여 지시내리는 주체였다. 비록 소련의 지령문이 조언(advice)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지령을 조언으로 은폐하려는 기도이며 보다 중요한 사실은 레베데프 장군을 거쳐 김일성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정문을 발굴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연석회의가 통일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부기했다. 연석회의는 소련의 허락을 받은 후에 되었다고 란코프 교수는 주장했다. 1947년의 시점에서는 소련이 허락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³⁸⁾ 이정식 교수는 “남북협상 회의는 소련군의 치밀한 계획과 세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⁹⁾ 이승만은 남북협상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가 4월 1일 그것은 소련목적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비판했다.⁴⁰⁾

5. 남북협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들의 운동은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 평화적인 독립-통일의 정신을 역사에 남기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통해 북에 이용당했다는 결과론적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 뻔한 운동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미 남과 북에서는 각기 정부 수립이 착착 진행되었으므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북에서는 이미 정권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구-김규식의 남북 지도자 회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석회의는 북한 단독정권 수

31) 『동아일보』, 1948년 5월 4일.

32) 송남헌, “비사-내가 겪은 남북협상: 김구-김규식은 왜 38선을 넘었나,” 『신동아』 (1983년 9월), pp. 211-212.

33) 송남헌, 『해방3년사』, 2 (서울: 까치, 1985), p. 549.

34)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 237.

35) 송남헌, 『해방3년사』, 2 (서울: 까치, 1985), p. 549.

36) 백학순, “서재필과 해방정국: 활동 및 평가,” 서재필기념회 (편), 『서재필과 그의 시대』 (서울: 서재필기념회, 2003), 514쪽; http://lgpress.intizen.com/download/13_seo.pdf.

37) 『경향신문』, 1948년 4월 13일.

38) Andrei Lankov,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 A Paper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olitics: From Division Toward Peaceful Unification, organiz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oul, Thursday, July 14, 2005, pp. 76-77; 안드레이 란코프, “토론: 도진순 교수의 김구의 민족통일론과 두 가지 삶,”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민주공화국의 탄생,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국립박물관, 2008년 7월 23일.

39) 이정식,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 비교 주제발표,” 『조선일보』, 2006년 4월 21일.

40) 『동아일보』, 1948년 4월 2일.

립을 위한 회합이 되어 버렸으며 북 단독 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해 주었다. 김구-김규식은 이러한 북의 정치적 노림수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므로 출발에 앞서 번민했으며 그렇게까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소앙 등은 북행에 앞서 ‘남북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백지위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 남북문제를 타결해 보겠다고 하며 평양을 향했었다.⁴¹⁾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연석회의는 짜여진 일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남측 인사들은 자기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 채 하나의 장식품 또는 들러리격의 역할을 한 채로 돌아오고 말았다.⁴²⁾

따라서 남북협상론과 통일지상주의는 심금을 울리는 고귀한 감정 표현이며 최선의 방책이기는 했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일뿐이었다. 이에 비해 이승만-한민당의 선정부수립-후통일론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책이었다. 만약 이승만이 단독정부라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미 수립되었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남쪽을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단정 반대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평가도 있다.⁴³⁾ 북은 이미 인민군을 창설했으며(1948년 2월 8일) 헌법 초안까지 발표(1948년 2월 10일)했고 남북협상 남측 대표단이 아직 평양에 있었던 1948년 4월 28일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9일 헌법 초안을 통과하는 등 북이 단독정부를 계속 추진하던 상황도 남의 단독정부 추진세력들은 무시할 수 없었으며 자신들의 단정추진을 가속화하여 북풍을 대비해야 했다.

41) 『새한민보』, 1948년 5월 중순호, p. 8.

42) 이정식, “1948년의 남북협상,” 『신동아』 (1980년 3월), p. 184.

43) 김구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다는 평가에 대해 신용하 교수는 김구는 이미 독립운동 시기에 해방-광복 후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맹렬히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즉 1941년 대한민국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을 천명했으며 단독선거에 이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을 뿐 1개 통일정부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것을 독립운동 시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었다고 평가했다. 신용하, “대한민국 건국과 백범 김구 선생,” 『백범회보』 제19호 (2008년 여름), pp. 12-15.